

음란물 단속 공무원이 꾸는 '동화의 꿈'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이종석 감독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황색 저널리즘이 난무하던 시대가 있었다. 대표적이었던 매체 '선대서울'을 위시한 주간신문 태반이 그러했다. 이들 저널리즘의 특색은 '3S'로 집약된다. 섹스(sex), 스포츠(sports), 화제성(sensationalism)으로,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영상(screen)이었다. 국민의 이목을 정치적 불만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 군사정권시절 '우민화'를 위한 '배기정책'이었다.

이것이 가져온 '불륜 문화'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영향' '불법 비디오 퇴출을 위한 학부모회' 등등 파급이 적잖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트라우마, 선입견이 크게 자리하는 편이다.

그러나 선입견은 깨라고 있다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때로 깨질 때가 있다. 아하- 하고 생각을 바꿀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자극이 일기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폭넓게 하기도, 전환하기도 한다.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선입견 깨기'를 목표로 하는 코미디로서 '성인 웹소설 또한 문학의 한 장르'임을 내세우고 있다.

스토리 구성에 극과 극의 대비되는 환경 및 상황을 대입해 놓아 가벼운 재미를 동반한 '성인 코미디'라는 장르가 적절할 듯하다.

동화작가 지망생답게 단비(배우 박지현)의 방은 캐릭터로 가득하다. 심지어 단비는 이 캐릭터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 캐릭터들은 작고하신 아빠(배우 박호산)의 동화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어서, 단비에게는 소중하기 짝이 없는 반려 캐릭터 급이다.

공무원 임용이 된 단비. 가히 프로포즈 급으로 축하하는 남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발을 내딛는 첫 출근이다. 단비가 배치된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보호 3팀. 이곳에서 하는 일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음란 비디오 등 음란물을 걸러내는 일. 나이브한 동화작가 지망생으로서는 "으악" 할 만한 환경이다.



이종석 감독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췌미디어엔 제공

성인 웹소설도 수위가 높으면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기 일쑤인이라 출판사 대표 황창섭(배우 성동일)은 방동위 현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달라며 피켓 시위를 벌인다. 자전거 출근하던 단비는 하필 황 대표의 애마인 울드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고액의 수리비 보상을 위해 황 대표 출판사에 성인 웹소설 20편을 써서 제공하기로 합의를 한다. 경험하지 않은 일을 어찌 상상력만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막연하던 차에 친구들의 경험담이 단비를 도와준다. 결과는 웹소설 순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일로 단비는 뜻밖의 재능발휘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발생한다. 아빠의 문학세계를 새롭게 만나면서 자신도 되돌아보게 된다.

꿈이 있는 삶은 행복하다. 그러나 그 꿈이 오롯이 나만의 것이 아닌, 그 무엇엔가의 영향력의 그림자

가 드리워 있었다면,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만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그 꿈이 세상의 선입견이 씩씩 있다면 그 선입견에 곳곳이 맞서 나가는 것도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역시 코미디나 과한 설정에 치우치지 않아 꽤 신선한 편이다. 다만, 소재 자체가 선정성에서 벗어나지 않아 흥행에 염두를 둔 영화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부분은, 필자가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과 일치한 점이 있어서이다. 필자가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자기소개서 이든 창작 단문이든 글에 '거짓'을 담지 말라는 것이다. 초보 글쓰기일수록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상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 연유는 '진솔함'에 있다. 습작을 해보면, 자신이 경험한 소재를 바탕으로 할 때 진솔함이 생겨남을 느끼게 된다. 진솔함이야말로 가장 큰 설득력이다.

기존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동화내용을 비틀어보면 어떨까? 등. (시나리오를 쓴 윤주훈 작가가 내 수업을 들은 학생이었을까? 라는 과한 생각이 들만큼) 스크린에서 헛갈리게 했던 부분은, 자꾸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건물과 현관이 등장해서, 단비가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소속 공무원인지를 알 수 없게 한 점이다. 그리 작은 문제가 아니어서, 로케이션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다. 코미디일수록 스토리가 가볍기 때문에, 그밖의 부분은 더더욱 치밀해야 그 가벼움이 단단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되는 것이며, 관객에게는 온전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까.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새봄의 꿈



취재수첩
한규빈
취재2부 기자
gyubin.han@jnilbo.com

우리 지역에서도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이미 비행기에 올라 전지훈련지인 태국으로 떠났고, KIA 타이거즈는 1차 스프링 캠프가 개최되는 미국으로 떠날 준비에 한창이다.

광주FC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코사무이로 떠났다. 오는 22일까지 마라레이나 스포츠리조트를 베이스캠프로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 등을 실시한 뒤 국내로 복귀하는 일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 무대 도전을 이어가는 광주FC는 귀국일도 빠르

다. 다음 달 11일 중국 산둥 지난에서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전지훈련 기간이 지난해 대비 일주일 정도 짧다.

아직 미디어테이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광주FC는 올해 K리그1에서 파이널A(6위 이상) 진출,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 파이널 스테이지(8강 이상) 진출을 목표로 할 전망이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떠났다. 다음 달 3일까지 알파인 풋볼 캠프 트레이닝을 베이스캠프로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에 연습경기까지 병행한 뒤 국내로 복귀한다.

전남드래곤즈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

하게 된다.

다. K리그2에서 일곱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1부리그 승격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22일과 23일 두 조로 나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어바인으로 떠난다. 다음 달 17일까지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를 베이스캠프로 1차 스프링 캠프를 실시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3월4일까지는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을 베이스캠프로 2차 스프링 캠프를 갖는다.

1차에서는 체력 훈련과 기술 훈련, 전술 훈련을 진행한 뒤 2차에서는 연습경기를 병행하며 본격적인 실전 준비에 돌입

다. 디펜딩 챔피언인 KIA 타이거즈는 KBO 리그 2연패에 도전한다. 최근 10년간 KBO 리그에서 연패를 차지한 팀이 전무했던 만큼 고난도 목표지만 최강 전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KIA 타이거즈는 통합 우승, 광주FC는 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2위, 전남드래곤즈는 플레이오프 진출 등의 성과를 이루며 지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다. 추운 날씨를 피해 태평양을 건너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이 올해 새봄의 꿈을 이루길 기대하고 응원한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